

석유업계소식



6鑛區서 가스층 발견 내년 4월에 評價井 시추

대륙붕 6광구1소구에서 양질의 천연가스층이 발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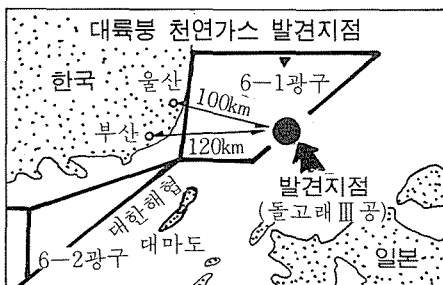
崔昌洛동력자원부장관은 지난 12월 8일 석유개발공사가 釜山 동북쪽 1백20km, 蔚山 동쪽 1백km 떨어진 6광구1소구의 돌고래 3지점에 대해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3천2백16m 시추하고, 11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검증 및 생산가능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해저 1천3백59m에서 1천3백70m까지의 11m 구간에서 가스층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崔장관은 이번 시추결과 양질의 대규모 가스층이 확인됐으나, 앞으로 평가정시추를 추가로 실시해야만 정확한 매장량과 경제성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내년 4월부터 석유사업기금에서 1백68억원을 지원, 3개孔의 평가정을 시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정 시추결과는 내년 4월 중에 밝혀진다.

이번에 가스층이 발견된 6광구1소구는 지난 70년부터 네덜란드 쉘社가 정부와 조광계약을 체결하고 5천3백m의 물리탐사와 1개孔을 시추했으나, 석유를 발견치 못해 76년말 조광권을 반납한 곳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륙붕장기개발계획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과거 탐사·시추결과를 재분석,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83년부터 油開公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정밀물리탐사를 실시케 한 뒤 4개 유망구조를 확인, 석유부존 가능성이 가장 큰 돌고래 3지점에 대한 시추에서 가스층을 발견한 것이다.

동자부는 이번 돌고래 3지점에 대한 생산가능성시험을 한 결과 이곳에서 분출된 가스가 가정용 및 산업용 연료로 쓸 수 있는 양질의 것임이 판명됐다고 밝혔다.



大型건물 LNG난방의무화

대기오염 막기 위해

서울의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내년 9월부터 시내 1천2백8개 대형빌딩이 난방용 연료로 LNG(액화천연가스)만 쓰도록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환경청이 고시한데 따라 도시가스사용의무화대상건물을 조사, 지난 11월 26일 확정, 지정했다.

이들 건물은 현재 B-C油나 경유를 난방용으로 쓰고 있어 황과 매연을 대기중에 방출, 자동차배기가스와 함께 서울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돼왔다.

서울시는 현재 0.054ppm인 서울의 대기오염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0.050ppm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에 따라 대형빌딩의 난방용 연료를 가스로 전환 하도록 추진해 왔다.

의무적으로 가스를 쓰도록 지정된 건물은 시간당 1백26만킬로칼로리 이상의 열량을 내는 보일러를 쓰고 있는 대형건물로, 대부분 연면적 2천평 이상이며, 아파트등 주거용 건물과 공장은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내년 9월 이후 이들 건물이 난방용 연료를 가스로 바꾸지 않으면 보일러에 대한 공해배출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정지명령을 하는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난방시설을 가동치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大氣오염측정 온라인화

수도권·蔚山·温山지구에 전산망

환경청은 지난 12월 9일 서울, 仁川, 水原, 安養등 수도권과 蔚山, 溫山지구 29개소의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전산화(TMS)했다.

이날 가동된 TMS는 해당지역의 대기오염 순간측정치를 서울과 釜山에 있는 중앙 및 지역센터에 온라인으로 연결, 각종자료를 컴퓨터로 처리, 동시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환경청은 이번엔 서울의 마포, 문래, 신림, 불광, 길음, 편목, 신설, 대치, 잠실동 및 광화문과 仁川의 송의, 부평, 구월동과 安養의 안양동, 城南의 단대, 성남동, 光明의 철산동, 富川의 심곡, 신흥동, 安山의 목내동에 TMS연결기구를 설치했다.

환경청은 이어 88년까지 釜山圈과 光州圈에도 오염자동측정망을 전산화, 대기오염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계획이다.

12월 나프타가격 인하

工場渡 5.92%... 0당 86원97전

대한석유협회는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인 나프타의 국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지난 12월 1일 국내 나프타 공급가격을 5.92% 인하, 이를 실수요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내나프타 공급가격은 공장도가격기준으로 지난 11월의 1당 92원44전에서 86원97전으로 5원47전이 내리고, 稅 포함가격기준으로는 11월의 1당 101원68전에서 95원67전으로 6원1전이 내렸다.

지난 11월중 국제나프타 평균가격은 日本 C&F(운임포함조건)가격으로 톤당 153달러42센트를 기록했

마리브油田 본격생산 하루 2만배럴 국내공급

우리나라가 개발에 참여한 北예멘의 마리브유전이 지난 12월 9일 본격 생산에 들어감으로써 앞으로 하루 2만배럴 이상의 원유를 안정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北예멘은 마리브유전의 원유생산시설 및 수출송유관건설공사를 모두 마치고, 지난 12월 9일 현지에서 北예멘 살레대통령과 참여업체대표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개시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원유생산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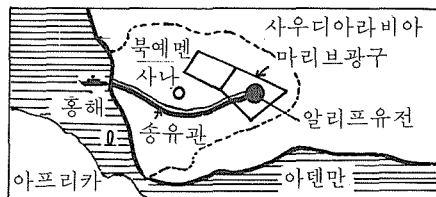
외신과 中東석유전문지(MEES, MEED) 美國석유전문지(PIW)등의 보도에 따르면 마리브유전은 지난 11월 17일부터 시험생산을 시작하는데 이어, 이날 생산설비공사가 모두 끝남에 따라 1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수출도 시작하게 됐다.

이곳에서 생산된 원유는 1차로 오는 연말 약 50만배럴을 선적, 내년 1월말께 蔚山항에 입항될 예정이며, 全量 油公이 인수한다.

마리브유전은 지난 82년 1월 美헌트社가 北예멘정부와 생산분배계약을 체결, 개발을 시작한 후, 우리나라의 油公, 三煥企業, 現代종합상사, 油開公등 4개업체가 콘소시엄을 구성 24.5%의 지분으로 참여했다. 국내 4社의 지분비율은 油公 65%, 三煥企業 15%, 現代종합상사 10%, 油開公 10%로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1억5천만달러를 투자했다.

마리브유전은 지난 84년 7월 최초탐사정인 알리프유전에서 석유발견에 성공, 86년 4월부터 하루 1만배럴씩 부분적으로 생산해 北예멘내수용으로 공급해 왔는데 이번 생산설비 및 송유관완공으로 최초 하루 13만5천배럴부터 시작하여 내년초부터는 하루 20만배럴씩 생산할 예정인데, 오는 89년부터는 하루 40만배럴 수준까지 생산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20만배럴을 생산할 경우, 우리나라는 하루 2만배럴 이상의 원유를 할당받게 되어 앞으로 하루 평균도입량(53만배럴)의 약 5%에 해당하는 원유를 장기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간 1억3천만달러 이상의 수입대체 및 국제수지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는데, 이는 10월의 161달러79센트보다 8달러37센트가 내린 것이다.

현재 국내나프타 공급가격은 국제가격에 연동, 석유협회가 매달 일

본 C&F가격의 전월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내나프타 공급가격의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다.

〈국내나프타가격 변동추이〉

(단위 : 원/ℓ, \$/t)

	국내가격(稅포함)	조정(%)	국제평균가격(日本 C & F기준)
1986. 1	168.42	▲ 4.01	210.50
2	146.10	▲13.25	149.91
3	103.58	▲29.11	102.34
4	70.54	▲31.89	114.62
5	79.11	12.15	142.77
6	98.73	24.79	126.55
7	87.63	▲11.24	91.40
8	65.21	▲25.58	125.23
9	86.28	32.32	137.58
10	94.46	9.47	134.58
11	91.95	▲ 2.66	135.30
12	91.86	▲ 0.10	137.36
1987. 1	92.72	0.93	162.53
2	109.03	17.59	156.57
3	101.71	▲ 3.96	166.73
4	110.96	5.97	174.17
5	111.37	3.07	177.19
6	111.63	0.23	180.57
7	114.85	0.19	177.79
8	112.20	▲ 2.31	157.08
9	99.14	▲11.64	151.77
10	95.58	▲ 3.59	161.79
11	101.68	6.39	153.42
12	95.67	▲ 5.92	-

油公공장, 특허전략세미나 개최
지적소유권에 대한 높은관심 보여

油公 공장에서는 지난 11월 13일 후생관 대강의실에서 「기술전쟁시대의 특허전략」에 관한 특별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날로 심화되는 선진

국의 지적 소유권 보호 경향과 관련, 이에 대한 국내기업의 이해제고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상공부산하 특허청 주관으로 각 기업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윤대욱공장장등 임직원 3백여명이 강연회장을 가득메운 가운데 개최되어 이 분야에 대한

공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는데, 차수명 특허청장의「첨단산업의 지적 소유권 보호 동향과 우리의 대응책」을 비롯하여 「기술입국의 조건과 실용신안제도 활용」(백만기교수),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이상진변리사)등 특허전략에 관한 열띤 강의에 이어, 공장 종업원들은 강사진과 많은 질의응답을 나누었다.

油公, 윤활유제품 KS추가획득
베어링윤활유등 4개품목

油公 윤활유부문은 베어링윤활유, 터어빈유, 열처리유 및 그리이스등 4개 품목에 대한 KS(한국공업규격) 공인 여건에 합격, 11월 16일자로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KS 표시 허가를 획득하였다.

油公은 그동안 윤활유제품의 품질수준향상을 통한 대외 공신력 제고책의 일환으로 제품에 대한 KS표시 허가 획득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4개 품목에 대한 허가를 추가 획득함으로써 총 윤활유 생산량의 97.6퍼센트에 달하는 제품이 KS제품으로 공인받게 되었다.

油公, 그리이스제품 수출호조
동남아에 2차에 걸쳐 26톤 수출

油公은 지난 5월 27일 연산 3천톤 규모의 그리이스 제조시설을 준공한 이후, 8월 14일 말레이시아에 72드럼(13톤)의 그리이스제품을 수출한데 이어 11월 13일에 다시 72드럼의 제품을 동남아지역에 수출하였다.

油公은 물량면에서 볼 때 큰 양

은 아니지만, 2차에 걸친 수출로 그 리이스 제품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하게 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수출 전망도 밝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油公공장, 태화사택 준공·입주 5개동, 1백17세대 수용

油公 공장은 지난 11월 14일 윤 대우공장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이수 열 울산시 중구청장 및 지역주민 등 모두 3백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중구 태화동 산 63번지에 신축한 태화사택의 준공·입주식을 가졌다.

이 태화사택은 울산공장 인근에 있던 기존의 제1사택지역이 신규에틸렌제조시설(NEC)의 부지로 사용됨에 따라 택지를 새로 매입, 신축한 것으로 지난 87년 3월에 착공하여 모두 78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완공되었다.

1만여평의 대지위에 5개동으로 구성된 태화사택은 연건평 4천평으로 모두 1백17세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단지내에 클럽, 모텔, 유치원, 테니스코트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공장은 이날 준공·입주식 후 지역주민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유대를 도모하였다.

湖油 具平會 부회장 한·가경협회의참석 태평양경제협의회 운영위원회에도

한국, 캐나다 경제협력위원회(Korea-Canada Business Council) 제6차 합동회의가 具平會 부회장(사진)

**내년油價 현수준 유지
導入價 배럴당 17달러전망**

정부는 내년도 국내油價를 현재가격수준으로 유지시키면서 환율동향을 감안, 하반기 물가정책운용상 필요할 경우 油價의 추가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88년도 석유수급 및 가격관리방향에 따르면 내년도 세계석유소비는 올해보다 1% 증가한 4천7백80만B/D에 달하고, 油價는 금년수준과 같거나 오히려 낮은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내원유도입단가는 연평균 배럴당 17달러 수준에 머물고, 특히 상반기중에는 더 낮은 배럴당 16.5~17.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국제원유가격이 배럴당 19달러 이상으로 상승, 국내정유회사의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그동안 비축한 석유사업기금을 활용하여 결손을 보전해 주고, 국내油價는 현수준에서 동결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油價 및 환율동향을 고려, 만약 국제油價가 더 안정되고 원화절상폭이 더 확대되면 하반기중 추가적인 국내油價인하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석유비축을 신속적으로 운용, 페로시아灣사택의 안정 등 공급불안요인이 사라지게 되면 88년 비축계획물량(7백50만배럴)의 축소조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을 위원장으로 한 韓國측 사절단 36명과 캐나다측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다.

1981년 이래 한·가 경협협력위원회 韓國측 위원장인 具 부회장은 지난 2일 개회사에서 동위원회가 양국간의 교역량 증대에 기여한 성과를 언급하면서 캐나다로 부터의 수입을 늘려 양국의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려는 韓國측의 노력을 설명하고, 전환기에 선 양국의 경제환경

에 양국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도전과 분발을 촉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한 캐나다 R. Dorrett 대사 및 캐나다 주재 노재원 대사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의 캐나다측 수석대표인 D.W.Campbell이 동자유무역협정의 협상과정과 결과를 설명하였으며, 동협정이 양국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어서 에너지, 제조업, 천연자원 및 서비스의 각 분과위원회가 개최

되었고 양국이 교역, 서비스 및 투자
의 증대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19개 항목의 공동성명이 채택되었
다.

한편 구평회 부회장은 10월 23일
부터 25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개
최된 태평양경제협력회(PBEC : Pa-
cific Basin Economic Council) 운영
위원회에 동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
장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湖油공장, 학생현장실습기회제공 산학협동 기반 다져

湖油 공장 87년도 학생현장실습
이 지난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2
주간 실시되었다.

산학협동을 다지기 위하여 실시
된 이번 학생현장실습은 조선대학교
병설 공업전문대학 화공과 학생 5
명과 송원실업전문대학 전자과 학생
5명 등 10명의 실습생들을 각자 전
공별로 AB조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비록 짧은 기간동안이
었지만 공장 각 현장에서 전공분야
에 관한 실습을 함으로써 산업체에
대한 전문을 넓힐 수 있는 보람있
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湖油, 사내품질관리교육 실시 제품의 표준화의식 고취

湖南精油도 그리아스 및 부동액
제품의 KS마크 획득을 위한 품질관
리기초 교육을 지난 10월중에 본사
및 인천 유통유공장에서 실시하였다.

한국공업표준협회의 정병현 전
문위원을 강사로 본사 및 인천저유
소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油公, CWF공장 준공 연료비 연간 1백60만불 절감

油公은 지난 12월 11일 울산공장구내에서 김항덕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과 건설 관계자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연산 4만톤(석탄기준)규
모의 CWF공장 및 68T/H 보일러 개조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 3월에 착공, 모두 7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이날 준공을 본 CWF
공장은 美國 어틀랜틱 리서치社(Atlantic Research Corp)의 CWF 제조기
술을 이용, 국내 최초로 CWF제품을 생산하며, 여기서 생산된 제품은
기존 유류 보일러를 개조하여 CWF 연소용으로 전환된 68T/H 보일러
에서 공장 자체 연료로 사용하게 된다.

油公은 이번 CWF공장 준공으로 연간 약 1백60만달러의 외화 절감효
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유연탄 70%, 물 29%와 첨가제 1%로 구성된 CWF는 고체상태인 석
탄과는 달리 정상 온도에서 펌핑(Pumping)이 가능한 유체연료로서 수
송·저장·연소방법 등이 유류(油類)연료와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같은
열량의 벙커C유에 비하여 20% 이상 낮다.

또한 CWF는 제조과정에서 선탄(選炭)공정을 통하여 석탄의 회분 및
유황분을 극소화하기 때문에 석탄의 직접 연소시 발생하는 연탄재·공
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기존의 유류전용 보일러도 약간의
개조로써 이를 사용할 수 있어 새로운 대체에너지로 평가되고 있다. 아
울러 油公은 90년대 초반에는 연산 50만톤 내지 1백만톤의 대규모 생
산공장을 건설, 발전·산업부문의 유류 대체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

이번 교육은 품질 및 관리의 의의,
표준화, 품질관리와 인간성, 전사적
품질관리의 사고, Q.C분임조 활동의
기본개념 그리고 Q.C분임조 활동의
개선활동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
었다.

湖油공장, 무사고안전기폭포상제도개정 안전의식진작 기대

湖油공장에서는 지난 1980년 개
정되어 현재까지 실시되어 왔던 6
개월 단위의 무사고 안전기록 포상
제도의 규정을 100만인시 단위로
바꾸어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도 개정의 목적은 종업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록달성 소요
시간이 6개월 단위와 100만인시 단
위가 거의 비슷해졌고 또한 기간
단위 무사고 기록보다는 100만인시

단위가 보다 목표 지향적이고 국내·외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사원들의 안전의식을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도의 개정으로 지금까지는 사고 6개월 안전 기록 달성시 공장사원0.5일분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포상을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무사고 100만인시 달성시 1일분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포상을 받게 된다.

湖油공장, 새마을건문항상 훈련
타회사 분임활동 참관·교류

湖油 공장은 제14기 새마을 전문항상훈련을 지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 실시하였다.

타회사의 모범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상황을 직접보고 교류회를 가짐으로써 Q.C사례를 상호비교하고 선진기법을 접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된 이번 전문항상훈련에는 공장내 우수분임조원 및 대내·외 표창수상자, 모범사원, 관리감독자급 사원 등으로 구성된 40명의 훈련단원으로 참가하였다.

이들은 동양맥주(주) 광주공장, 문화연필(주) 전주공장, 한국도자기(주) 청주공장, (주)금성사 구미 TV사업부, 포항종합제철(주), (주)유공 울산정유공장, (주)럭키 연지공장 그리고 연암기념관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京仁, 모범 및 장기근속사원위로
부부동반 여행 주선

〈87년도 모범종업원 및 장기근속

사원 위로여행〉

京仁에너지는 87년도 모범종업원 5명 및 20년 장기근속사원 6명에 대하여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4일의 위로여행을 실시하였다.

비상계획부 오세제 사우등 총 11명에 대하여 배우자 동반으로 정아 설악콘도 2박 및 정아 용인콘도 1박의 일정으로 위로여행을 실시하였는데 동 기간중의 유급휴가 및 여행경비 회사부담과 함께 1인당 10만원의 여비를 지급하였다.

京仁 동우회 소식
탁구회

京仁에너지 본사 탁구동우회는 지난 11월21일(토) 본사 지하 탁구장에서 추계탁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총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토너먼트로 경기를 진행하였는데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또한 11월27일 한양화학 탁구동우회와 8단1복식으로 친선경기를 하였는데 예상을 뒤엎고 京仁이 5승4패로 승리하여 그간의 실력향상을 실감케 하였다.

단 식 복 식

우 승: 윤성현 윤성현, 정규철
준우승: 김선무 김두영, 노상현

京仁공장, 임직원 교양강좌
충북 꽃동네 오신부 초빙

京仁에너지 인천공장은 12월 9일 권혁중 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음성군의 꽃동네 회장인 오웅진 신부를 초빙하여 교양강좌를 실시하

였다. 이 강좌에서 오신부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 욕구 충족과 자기중심의 가치관에 의하여 추구하는 잘못된 행복관을 지적하고, 참된 행복은 사랑을 나누는데 있음을 강조하며 꽃동네 운영 취지를 소개하였다.

京仁, 불우이웃에 성금
일일차집 열어

京仁에너지 인천공장 모임인 성지회(하경숙)는 11월 28일 인천소재 커피숍(갯빛거리)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일일차집을 열었다. 임직원 및 친지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1,0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성지회는 매년 불우이웃과 최전방 벽지학교에 책을 보내는 일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였다.

雙龍, 계열 중부주유소 준공
중부고속도로의 명물로

雙龍精油계열 중부주유소가 12월 3일 중부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준공됐다.

틀게이트형 캐노피와 함께 국내 최신행 시설을 갖춘 중부주유소는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상행선 휴게소)와 양덕리(하행선 휴게소)에 각각 세워져 벌써부터 중부고속도로의 명물로 등장하고 있다.

雙龍, 농아작품 사내판매
구두 72족과 도자기류 20여점 팔려

雙龍精油 온산공장 노조는 울주군 관내 메아리 농아학교 학생들의

雙龍, 본사기구 일부개편 석유화학사업본부 신설등

雙龍精油는 지난 12월 1일 본사기구를 일부 개편했다.

雙龍精油는 이번 기구개편에서 신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술상무산하에 석유화학사업본부를 신설하였으며, 사업분야별 공정기술에 대한 기술지원과 연구개발기반 강화를 위하여 기획조정실 산하에 기술공정부 신설과 함께 기술연구팀을 기술연구소로 확대개편했다.

한편, 쌍용정유는 본사기구개편에 따른 인사조치를 다음과 같이 단행했다.

- ▲석유화학사업본부 이사 박종주(공장관리담당 부공장장)
- ▲공장관리담당 부공장장 홍동표(영업담당이사)
- ▲기술공정부 차장 신우철(공장 검사과장)
- ▲기술공정부 과장 하성기(기획조정부 기획2과장)

자립기반 지원사업의 하나로 농아들이 만든 생활용품 사내 판매활동을 펼쳤다.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 실시된 농아작품 사내판매는 지난 11월 16일부터 3일간 구내식당에서 판매했는데 구두 72족과 도자기류 20여점이 팔렸다.

한편 노조는 판매대금 전액을 농아학교에 전달하고 이들의 기술교육을 적극지원키로 했다.

雙龍, 대리점직원 공장초청 현장견학으로 유대강화 도모

雙龍精油는 계열 유통업체와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11월22일 서울·경기지역 대리점 직원을 온산공장에 초청했다.

이태원 판매3부장의 안내로 온산공장을 찾은 서울·경기지역 대리

점 직원 45명은 12시에 도착, 회사 소개슬라이드 관람과 모델룸 브리핑 청취에 이어 현장을 돌아보고 공장 식당에서 공장간부들과 점심을 같이 했다.

한편, 부산동의대 화학과 2학년생 40명도 11월 18일 김병순교수의 인솔로 온산공장을 견학했으며, 견학 도중 품질관리실에서 각종 시험장비와 분석장치·기기등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현장학습에 유익한 질문토론시간을 갖기도 했다.

極東, 영어능력평가 실시 우수직원에 표창

極東石油는 종업원 능력개발 계획의 일부로서 지난 11월 21일 TOEIC을 이용한 영어능력 평가를 실시, 종업원들에게 자신의 정확한 영어

구사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번 시험의 응시자는 직종의 구분없이 1급사원이상 대리까지 총300명인데 사업장별 평균성적은 본사 536점, 대산공장 451점, 부산공장 368점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성적은 자재부 나병률대리가 기록하였다.

극동은 앞으로도 계속 종업원들의 자기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영어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성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極東, 직원 건강진단 실시 간염 및 간기능검사

極東石油는 12월 8일-9일 서울지역 그룹사 직원을 대상으로 87년도 정기 간염 및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검사는 전반적인 간기능 검사는물론, 신장, 당뇨, 콜레스테롤등의 검사종목을 추가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내년초에 종업원에 대한 간염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極東, 소방경연대회 실시 최우수상에 생산 1과

極東石油 부산공장은 불조심강조·기간 행사 일환으로 지난 11월 20일 산고지역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유류화재진화 및 소화전 속도 방수종목에 걸쳐 자체소방 경연대회를 가졌다. 총10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를 가진결과 최우수상에는 생산 1과 팀이, 우수상에는 보안과, 생산 2과, 동력과가 각각 차지했다.